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

- Bloomberg: 최근 일자리 둔화, 연준에는 만족치 않아
- Bloomberg: 연준의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면서 글로벌 금리도 종결 가능성
- WSJ: 식품 가격 이상이 각 국가에 새로운 인플레이 위협

#### [SVB 사태와 금융]

- Bloomberg: 워렌 상원의원등, SVB 주요 고객들에 서한...상호 관계성 문의

#### [미국 생활]

- WSJ: 미 육아 휴가 늘어난다... 주정부와 고용주 확대 노력으로

#### [부동산]

- CNBC: 앞으로 다가오는 부동산 '붕괴' 우려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미국 온라인 거래 가격 7개월째 하락... 연간 비교시
- WSJ: 미국, 제조 활동 돌아왔다
- WSJ: 건설 산업, 일은 많으나 인력 부족
- WSJ: IT 부문 해고자들, 안정적인 직업으로 바꾼다
- CNN Business: 테슬라, 상하이에 대형 배터리 공장 건립
- Bloomberg: TSMC 2분기 연속 수요 감소로 판매 못미쳐

####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4월)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경제]

#### **Bloomberg: US Jobs Slowdown May Not Be Enough for the Fed**

##### **최근 일자리 둔화, 연준에는 만족치 않아**

- 지난주 금요일에 일자리 236,000명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는 이 코노미스트들이 생각하기에, 노동력에 새로운 진입자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비율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수치다.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실업률은 3.5%로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 5월 2일부터 양일간 연준 회의 전에 마지막 보고서이다. 고용 시장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만 그 추세는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온건하다.
- 일부 전문가들은 "감속 속도가 느린 것은 실업률이 연준 관리들의 연말 전망치인 4.5%를 밑돌게 될 위험을 나타낸다. 이 경우 연준은 5월 이후에 몇 번 더 인상해야 한다"는 것.
-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 거래자들은 최종적으로 0.25%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약 70%라는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Bloomberg 기사

**Bloomberg: End May Be in Sight for Global Rate-Hike Cycle as Fed Nears Peak****연준의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면서 글로벌 금리도 종결 가능성**

- 이제 경제 성장의 침체의 첫 조짐들이 가시화되고 금융 시장 긴장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이 5월에 최소 한 번 더 인상한 후 일시 금리를 중단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변화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확고히 할 수 있게 된다.
- 이같은 연준의 통화 정책 전환은 유럽중앙은행과 다른 국가 은행들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하는 방향으로의 피벗(전환)으로 전환하게 된다.

## Bloomberg 기사

**WSJ: Food Prices Are New Inflation Threat for Governments and Central Banks****식품 가격 이상이 각 국가에 새로운 인플레이 위협**

-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년 이상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가정의 또 다른 '전쟁' 비용은 반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바로 식량이다.
- 올해 3월까지 1년간 유로존에서 식품, 알코올, 담배가격은 15.4% 증가했지만 에너지 가격은 0.9% 감소했다. 미국에서는 올해 2월까지 12개월간 식품 가격은 10.2% 증가, 에너지 가격 인상률 5.2%보다 앞섰다.
-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식품 가격이 냉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식품 가격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상승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은 가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WSJ 기사

**[SVB 사태와 금융]****Bloomberg: Elizabeth Warren, AOC Ask SVB Depositors to Detail Ties to Bank****워렌 상원의원등, SVB 주요 고객들에 서한...상호 관계성 문의**

- 엘리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 연방상원 의원 등의 지난 일요일 SVB 은행의 최대 예금주 14명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 내용은 몰락한 SVB 은행과 그 은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부 벤처 자본가 및 기술 창업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 Warren과 뉴욕주 Casio-Cortez 연방 하원의원은 이들 14명 예금주와 SVB와의 연결성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질문들은 그들의 관계 기간과 그들이 은행에 예치했던 돈의 양을 포함했는데, 투자자들과 예금자들이 하루 만에 420억 달러를 인출하려고 시도한 후 3월에 몰락했다.
- 이들은 또한 이 은행 이사들과 임원 또는 투자자들이 SVB로부터 신용 한도와 같은 특별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생활]

#### 도표 한개 WSJ: More Workers Take Parental Leave as States, Employers Expand Eligibility 미 육아 휴가 늘어난다... 주정부와 고용주 확대 노력으로

-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올해 2월까지 12개월 동안 평균 40만6천명의 근로자가 유급 또는 무급 육아휴직으로 인해 결근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13.5% 증가한 수치다. 1월에 결근한 맞벌이 부모는 47만8천명으로 1994년 기록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 육아휴직 상승세의 원인 중 하나는 지난 2년 동안의 출산 증가와 많은 근로자가 집에 머물게 되면서 전염병 자체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
- 그러나 주요 요인은 정부와 고용주 정책. 미국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선진국이지만,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9년 19%에서 지난해 3월 25%로 늘었다. 7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이제 고용주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4개주에서 증가한 것. 민간 고용주도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WSJ 기사

### [부동산]

#### CNBC: The coming commercial real estate crash that may never happen 앞으로 다가오는 부동산 '붕괴' 우려

- 실리콘 벨리 은행의 붕괴와 지역 은행 위기에 이어 상업용 부동산 붕괴에 대한 우려가 뒤따랐다. 일부 은행 부동산 대출은 재택근무가 계속되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사무실 건물 대출의 거의 1/4은 내년에 더 높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아야 하며 공실률이 높은 낮은 수준의 부동산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소매 및 호텔은 견고한 편이다.

CNBC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US Online Prices Decline for a Seventh Month on Annual Basis

#### 미국 온라인 거래 가격 7개월째 하락... 연간 비교시

- 미국 온라인 거래 품목 가격은 작년 3월 대비 1.7% 하락하여 7개월째 하락했으며, 이는 4개월동안 가장 큰 하락폭이다. Adobe 디지털 가격 지수의 18개 범주 중 절반 이상이 연간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3월 온라인 거래 가격은 전월 대비 안정적이었다.
- 꽃 및 관련 선물은 2022년 3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24.3% 하락했으며, 전자제품은 12.9% 하락, 장난감은 6.6% 하락했다. 가전제품과 정원제품의 온라인 비용은 각각 4.9% 하락했다.
- 한편, 식료품 가격은 가계 예산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 6개월동안 가격 상승폭은 완화되었지만, 작년 3월 대비 10.3%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 WSJ: America Is Back in the Factory Business

#### 미국, 제조 활동 돌아왔다

- 인구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조 관련 건설 지출은 1,080억 불에 달했으며, 이는 학교나 의료 센터 또는 사무실 건물을 짓는 데 지출한 것보다 많은 금액으로, 기록상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성장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의 첨단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 현재 미국 제조업 취업률은 민간 부문의 약 10%로, 최근 미국 노동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이 사업에서 거의 8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산업은 노동자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제조업 협회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과 다른 병목 현상이 산업 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은 GM과 LG Energy Solution Ltd.의 합작인 Ultium Cells의 소유이며, 이 공장은 2024년 말부터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장은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의 공장들과 25억 달러 연방 대출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시의 공공시설에서 전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받는다. 또한 이 공장은 미정부로부터 6.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WSJ 기사

### WSJ: Construction Industry Has Work, Needs More Workers

#### 건설 산업, 일은 많으나 인력 부족

- 이자율 상승의 부담으로 약해지고 있는 주택 건설과는 달리, 원조 건설 업계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높아진 금융 거래 비용에도 불구하고 원조 건설 프로젝트 지출은 감소하지 않았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최근 2월 원조 건설 지출은 9,820억 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약 17%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 샌디에고에 본사를 둔 Harper Construction Co.의 대표인 Jeff Harper씨 “입찰할 수 있는 일보다 처리할 건수가 많아 4개월동안 10건의 일을 거절해야 했다”며 “우리는 대부분 2024년까지 예약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전기 기자재와 노동력 부족 때문에 프로젝트가 완료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건설업계 목공업자 수는 2022년에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전기 기술자 수는 작년에 약 9%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목공업자의 숫자는 2019년에 비해 아직 적고, 전기 기술자는 2019년보다 조금 많은 상태이다.
- 3월에 발표된 노동통계국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비주거지 건설 노동자 수는 작년 같은 달 대비 3.3%(149,100명) 증가했다. 건설업자들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초급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지난해 초급 수준 노동자 수는 2019년 대비 8.6% 증가했다.

WSJ 기사

## WSJ: As Tech Jobs Disappear, Silicon Valley Veterans Reset Their Careers

### IT 부문 해고자들, 안정적인 직업으로 바꾼다

- 요즘 고용 시장의 상황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 직업이나 자신의 목적과 일치하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는 녹색 에너지나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이다.
- 직장 데이터 제공업체인 Revelio Labs Inc.가 공개 온라인 프로파일 분석한 결과, 기술 직원 중 다른 산업으로 전환한 비율은 작년 말 이후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 43세의 John Kew는 데이터 과학 스타트업으로의 전환에는 20%의 임금 삭감이 포함되었지만, 그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이 구축하는 제품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일한다. “엔지니어로서, 나는 유용한 일을 하는 것에서 가치를 얻는다.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느끼기 어렵다”고 말했다.
- 수년동안 기업들은 고용 안정성과 더불어 후한 보상 패키지, 사내 특전 그리고 다양한 혜택으로 근로자들을 잡는 등 기술 인재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으나, 현재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점을 선전하고 있다.

WSJ 기사

## CNN Business: Tesla is opening a Megafactory for huge batteries in China

## 테슬라, 상하이에 대형 배터리 공장 건립

- 테슬라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릴 것을 발표하면서 상하이에 Megapack 배터리 공장을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트위터에서 상하이의 새로운 공장은 거대한 양의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우 큰 배터리인 Megapack을 만 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Megapack은 에너지 그리드를 안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대한 배터리로, 평균 3,600개의 집을 1시간동안 구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이 배터리는 자동차가 아닌 공공 시설과 대규모 상업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된 것이다.
- 중국의 언론사인 Xinhua는 이번 계획을 최초로 보도하면서, 테슬라는 올해 3분기에 공사를 시작하고 2024년 2분기에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하이 공장은 캘리포니아주 Lathrop에 있는 Tesla Mega factory와 동일한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40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용량에 해당한다.

CNN Business 기사

## Bloomberg: TSMC Sales Miss for Second Straight Quarter on Tepid Demand

### TSMC 2분기 연속 수요 감소로 판매 못미쳐

-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인 TSMC는 세계 전자 제품 수요의 지속적인 약세의 신호로 2분기 연속 매출 예상치를 놓쳤다. Bloomberg의 계산에 따르면 이 회사의 1분기 매출은 5,086억 대만 달러로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인 5,255억 대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TSMC는 3월의 급격한 둔화가 이 현상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매출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454억 대만 달러였다.
- TSMC의 미국 상장주는 뉴욕 거래 시장에서 3.5% 하락했다. 이러한 예상치 오류는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은행 위기와 같은 요인들로 소비 심리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불황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IDC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PC 출하량은 1분기에 29% 하락했다.
- TSMC는 올해 자본 지출 계획을 작년 363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로 낮췄다. 지난 1월에 TSMC의 경영진들은 달러 기준으로 상반기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하반기에는 사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4월)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보고서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OPEC+ 깜짝 감산에 '시장 충격'...연말 배럴당 100달러 전망도"**

**"미국 대응책 제한적...달러화는 강세"**

2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의 깜짝 감산 결정은 이 기구를 주도해온 사우디아라 비아가 그동안 생산량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해 온 만큼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들은 브렌트유 가격이 연말까지 최고 배럴당 100달러(약 13만1천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들의 감산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